

## 제 3문화 귀국청년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돌봄: MK를 중심으로

김 미 경\*

### 국문초록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다. 성장기를 부모의 문화권이 아닌 타문화권에서 지낸 아이들을 일컬어 '제 3문화 아이들'로 정의한다. 선교사 자녀는 다중언어, 다중문화, 다중사회 등의 다중성 경험을 하므로 제 3문화 아이들의 범주에 속하는 작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선교사와 그 자녀들은 선교지의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일상적 생활영역에서 선택적 적응을 해야 하는 존재로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앙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민족과 교섭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또한 이들은 국외의 다양한 선교 현지에서 성장기의 일정 기간을 지내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문화적응과 문화 간 이동으로 겪게 되는 역문화 충격을 크게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령기의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대학생과 성인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선교사 자녀들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 이들이 학령기에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돕고 돌봐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는 청년기 시절의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경험들에 대한 기독교 돌봄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귀국 및 재입국한 선교사 청년 자녀들의 재적응을 위한 기독교 상담적 돌봄에 관해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해 보았다.

**주제어:** 제 3문화 아이, 선교사 자녀, 역문화 충격, 문화적응, 기독교 돌봄

\* 서울한영대학교 재활상담심리학과 부교수

• 이 논문은 2021년도 서울한영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I. 여는 글

오늘날의 상황은 다양한 의미에서 이동의 시대로 지역과 세계가 연결되며, 개인과 새로운 공동체가 만나 동질성과 이질성이 혼재한다. 따라서 한 개인은 새로운 집단적 경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혼성적 정체성(hybrid identity)'을 선택하게 된다. 2020년도에 한국에서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는 168개국 22,259명으로 이는 2006년 발표된 10,433명보다 약 2.1배 증가하였다. 한국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s, 이하 MK라 칭함)의 수도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9년 선교사 자녀의 수는 18,545명으로 2006년에 발표된 10,433명보다 약 1.8배 증가하였지만, 2020년 선교사 자녀는 16,256명으로 집계되어 코로나 이후 약 2290명이 감소하였다(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20). 2020년 2월 이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19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하여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선교사들과 그 가족은 본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각하므로 귀국한 선교사 및 그 자녀의 수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선교사들은 배우자, 자녀와 함께 파송되는바,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다. 이처럼 성장기를 부모의 문화권이 아닌 타문화권에서 지낸 아이들을 일컬어 '제 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 이하 TCK)로 정의한다. 물론 제 3문화 아이들의 등장은 여러 국가로 이주하는 유목민의 이동과 같은 인류의 문화가 존재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있어 왔지만, 빠른 세계화의 물결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다양한 형태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에서 성장하게 된 가정의 자녀들도 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장기를 국외에서 생활하는 TCK들 중에는 선교사나 다양한 직업을 가진 크리스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간 이동을 하면서 타 문화권에서 성장기를 보내는 선교사 자녀들의 경험은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해 왔다. 부모는 해외 선교사역에 몰두하므로 자녀들의 타문화 경험을 보살필 정신적인 여력이 없었다고 선교사들은 술회하고 있다. 이들은 겪게 되는 타문화권의 다양한 도전에 대한 준비 없이 선교지에 파송이 되고 있다. 선교사와 그 자녀들은 선교지의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일상적 생활영역에서 선택적 적응을 해야 하는 존재로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앙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민족과 교섭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때문에 이들은 현지의 민족국가 및 동화주의 이데올로기와 긴장을 일으키고 또 대립하기도 한다.

제 3문화 아이들은 자신의 소속감이나 민족 정체성을 모국이나 현재 거주하는 국가 중에 양자택일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시에 혼성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MK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도 TCK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국외의 다양한 선교 현지에서 성장기의 일정 기간을 지내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문화적응과 문화 간 이동으로 겪게 되는 역문화 충격(reverse culture shock)을 크게 경험하게 된다(김혜정, 이수경, 2016; 정진경, 양계민, 2004; Gaw, 2000).

우리나라보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외국의 경우에는 제 3문화권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Cockburn, 2002; Fail, 2004; Mclachlan, 2007; Selmer, 2003; Straffon, 2003; Zilber, 2005). 그러나 제 3문화 귀국 학생들의 재적응 연구는 다면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귀국 선교사 자녀들의 재적응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하며 특히 기독교 상담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국제사회의 인재로서 건강한 성인기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 II. 펴는 글

### 1. TCK에 대한 이해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성인이 되기 전에 다양한 양상으로 여러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부모의 문화 밖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Pollock과 Van Reken(1999)은 부모의 모국문화를 제 1문화로, 가족들과 살고 있는 체류국가 문화를 제 2문화로 명명하면서 이와는 다른 ‘문화 간의 문화(culture between cultures)’, 혹은 ‘틈새문화(interstitial culture)’라는 의미로써 ‘제 3문화’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러한 문화권에서 성장한 아이들을 ‘제 3문화 아이’(TCK)라고 명명하였다(이수경, 2021, 재인용).

TCK는 미국의 사회학자인 Useem, Donoghue와 Useem(1976)이 제안한 용어인데(Dillon & Ali, 2019), 이들은 1950년대 인도에 거주하면서, 사업이나 외교, 선교 등의 이유로 미국에서 온 재외국민들을 만나고 관찰한 바, 이들 안에 독특한 하위문화

가 있음을 주목하게 되었다. 즉 이 학자들은 인도에 거주하는 미국 아이들이 인도 문화도 아니고 미국 문화도 아닌 두 개의 다른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한 바, 성인이 되기 전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두 개 이상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아이들을 '제 3문화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TCK들은 타 문화권에서 1년 정도만 지나도 이들에게서 TCK로서의 특징이 발견될 수 있다(Pollock & Van Reken, 2001). 이들 TCK들은 잦은 이동으로 말미암아 고유한 '고향'을 갖지 못한 채 성장기의 중요한 시기를 타문화권에서 보내는데,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아이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다중 언어 능력과 자연스러운 대인관계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Bell-Villada, Sichel, Eidse, & Orr, 2011), 해외의 다양한 적응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통찰력이나 국제적인 시야도 지니고 있어서 향후 국제 사회에서 적응할 때 필요한 자질의 기초를 갖추게 된다(McGregor, Renu, & Deepa, 2013). 즉 다양한 문화 경험들은 사회적 민감성을 가진 협상가로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Lyttle et. al., 2011).

또한 제 3문화 아이들은 비(非) 제 3문화 아이들(non-TCK)에 비하여 세계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니고 있어서 새롭고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Hervey, 2009). TCK들은 일찍이 여러 문화권을 넘나드는 폭넓은 경험을 통해 모국의 문화에 매이지 않고 체류한 나라의 문화 장점과 단점을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어 동년배의 친구들보다 훨씬 원숙한 사고가 가능하다. 특히 성장기에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닌 경우에는 여러 국가의 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기도 하여 뛰어난 언어능력과 외국어를 새로 배우는데 있어서도 보다 쉽게 배우는 경향이 있다. 여러 언어의 구사 능력은 사고의 폭을 넓히게 되어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높은 학업 성취도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된다(Geeraert & Demoulin, 2013).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타 문화의 심층부에까지 민감한 능력을 갖게 되어 국제무대를 배경으로 활동 시 성공적인 수행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제 3문화 아이들은 잦은 이동으로 상실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한다(Gilbert, 2008). 어느 문화권에서 낯선 문화권으로 이동할 때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특징적인 감정은 근심과 우울을 겪는다는 것이다. 높은 이동성 경험은 교육, 환경적 측면에서 학업간의 연계를 약화시켜 학습 결손이 많을 수 있으며 소속감과 뿌리 의식 결여로 인해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무덤덤해져 만남과 헤어짐이 그저 일상의 한 부

분으로 인식되어 심적인 동요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소속감의 결여로 장래 문제에 대한 결정도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들은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에 사전에 준비 없이 타문화권에서 거주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인도 현지인도 아닌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겪게 되어(Cockburn, 2002) 한국인도 아니고 현지인도 아닌 약한 소속감으로 주변인(marginal person)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른바, 국제 방랑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TCK는 잦은 이사와 다양한 곳에서의 체류로 인해 자신의 뿌리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므로 어느 문화에도 주도성을 갖지 못하게 되어 체류국 문화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정서적인 이질감과 분리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TCK의 상실감과 주어진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은 오히려 문화 간 이동으로 인해 삶에 스며든 다양한 문화의 영향으로 단일문화권에서 성장한 또래들과는 구별되는 적응능력 등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Tannenbaum & Tseng, 2015). 즉, TCK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 사회를 접하며 여러 문화권에 거주한 경험들은 문화적 감수성, 다양성을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이 접한 문화에 대해 융통성을 가지게 되며, 차이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Bikos et al., 2009)를 지닌다. 그런데 이들이 귀국을 하게 되면 역문화 충격을 경험하여 적응을 어려워할 수 있다(이영선, 이동훈, 2009; 채송희, 2009). 청소년기에 거주하는 현지 문화 속에서 낯선 이방인처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생활하다가 다양한 이유로 귀국하였을 때 이들은 다시 한번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이주 국가에서 오랫동안 체류하였을 경우 모국으로 돌아왔을 때 파생되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TCK는 마치 모국으로 이민 온 사람처럼 외양은 같으나 행동과 사고방식 및 가치관 등은 모국에서만 성장한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한다(백애경, 2000). 이들이 보는 한국 사람은 언제나 '빨리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 빡빡하고 사는 맛이 없다고 한다(김혜지, 김미경, 2021).

TCK는 귀국 이후 외국과 한국 간의 입시 위주의 교육방식 차이로 국내 학교생활 재적응이 어려워 이후 진로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혜지, 김미경, 2021). 그러므로 이들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불편감인 역문화 충격을 잘 극복하여 적응력과 탄력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돌봄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른바 제 3문화 아이들의 문제는 급속한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일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거주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이 많이 증가하였고,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학업을 하며 다시 귀국하는 제 3문화 아이들도 증가하였다. TCK들은 부모의 문화와 성장 문

화 등 두 개 이상의 문화를 경험하지만 어떤 문화에도 온전히 주권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과 맺는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므로 성인이 되어서도 그 특징이 이어져 '성인 제 3문화 아이들'의 단계로 옮겨감을 인식하면서 이들에 대한 기독교적 돌봄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 2. MK에 대한 이해

단기간 내에 세계적인 큰 교회를 이룬 우리나라는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선교지로 증장기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들 선교사 자녀들은 선교지에서 다중언어, 다중문화, 다중사회 등의 다중성 경험을 하게 되므로 제 3문화 아이들의 범주에 속하는 작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s: 이하 MK)는 부모를 따라 선교지를 옮겨 다니며 여러 문화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제 3문화 아이들로 칭하기도 한다(박정은, 김영주, 김소현, 2013). 모국문화와 현지문화 그리고 틈새문화에서 성장한 MK의 경험에는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독특한 요소들이 있게 된다. 다문화(cross-culture) 경험과 이동성(mobility)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MK들의 다문화 경험은 잦은 선교지의 이동으로 여러 문화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많고 적응력도 강한 편이다. MK는 새로운 선교지로 이동할 때마다 이동하는 지역의 문화적인 기초 요소들을 다시 습득해야 하고 다시 내면화 시켜야 한다. 일반 청소년들은 문화적 규칙들을 연습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확인해보는 시기 동안에 MK들은 여전히 그 규칙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MK는 문화적 규칙들에 대한 확장된 수용 때문에 발달이 지연되기도 한다(Pollock & Reken, 2008). 지연된 사춘기와 더불어 MK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보다 성숙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한 지역 혹은 한 국가에서만 성장한 청소년들이 문화적 규칙들을 연습하고 가치를 공고히 하는 시기 동안, MK는 그 규칙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내야 하므로, 발달이 지연될 수도 있으며 정체성과 소속감의 영역에서는 문화적인 혼돈으로 인해 자기 확신의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원남숙, 2006). 또한 이들은 세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애국심보다는 객관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에 비애국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김동화, 1996).

둘째, MK의 이동성 경험은 본국의 문화와 해외 거주지 문화가 혼합된 '제 3문화' 혹은 '교차문화' 경험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외국어 구사 능력, 적응력 등의 장점

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와 함께 선교지로 이동하여 문화 간 이동을 하게 되므로 피상적인 대인관계, 이별에 대한 슬픔, 그리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 등의 다양한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다(Bikos et al., 2009; Cockburn, 2002; Pollock & Van Reken, 2008). 선교지 이동에 따라, 선교사 부모는 자신들의 언어와 사역에만 집중하게 되므로 MK는 타문화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홀로 힘겹게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들은 부모의 사역 중에 새로운 선교지 배정으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은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요한 삶의 변화들 앞에서, MK는 그저 자신들 눈 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통제력 상실을 빈번히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필자가 알고 있는 몇몇 선교사 자녀들은 급작스럽게 비행기에 오르게 됨으로써 익숙해지려고 했던 것과 이별을 고해야만 했다고 전한다. 이처럼 선교사 자녀들을 포함한 제 3문화 아이들은 지금까지 편안하고 친숙하게 여겼던 것들과 반복적인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어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평생 동안에 걸쳐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실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처럼 MK의 잦은 이동은 적절한 기간 동안의 고정된 문화적 환경을 갖지 못하게 되고, 변변히 달라진 선교지 문화의 새로운 규칙들과 행동들 및 가치들을 배우고 수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이들만의 독특하고 복잡한 심리, 정서적 특징을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잦은 변화는 정서적 혼란감과 부적응을 야기하는데, 선교사 자녀라는 이유로 주변의 비현실적이며 부담스러운 기대감을 받는데다가(최주혜, 2013), 부모의 선교사역에 같이 임하게 될 때는 과중한 책임감과 또래와의 관계 어려움, 바쁜 부모님과 불안정한 애착 등의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박은주, 2018). 실제로 MK는 같은 국적을 지닌 주변 재외국민 또래 집단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도 열악한 편이다. 대개 선교지는 도시 중심이 아닌 변두리나 지방이기 때문에 MK의 약한 자아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늦어진 청소년기와 정체감의 혼돈은 귀국 후에 역문화 충격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은숙, 2013).

대개 선교사 자녀로서 만족도가 높으면 선교지에서 적응유연성이 높아지지만(권민영, 2013), 이들이 '한국 재입국'을 하면 선교지에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만족도가 낮은 집단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한국에서의 재적응시 이전 선교지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자신의 상황과 한국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선교사 자녀로서 만족도가 떨어진 경우는 한국의 재입국은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며 새로운 상황으로의 전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적응이 덜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선교지에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관계의 피상성, 뿌리 의식과 소속감의 결여, 이별에 대한 상실감으로 개인 정체성 발달이 지체되기 때문이다(Pollock & Reken, 2008).

그동안 MK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교교육을 포함한 자녀 교육영역, 선교의 영역에서 접근한 선교사 자녀 사역, 그리고 선교사 자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 영역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즉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령기의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대학생과 성인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방준범, 전병철, 2018). 이처럼 선교사 자녀들의 다문화(cross-culture) 경험과 이동성(mobility)은 국적과 민족적 배경이 다양한 친구들과 사귀으로써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그들과 잘 화합하여 서로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사람과 문화의 차이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타문화와 타민족에 대해 한국에서만 거주한 사람들보다 마음이 열려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MK가 지닌 국제 경험이라는 강점은 개개인이 겪어낸 다양한 차별과 문화적 갈등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귀국 MK 대학생들은 귀국한 비MK들보다 더 심각한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MK 대학생과 비MK 대학생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MK가 비MK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으며 사회 문화적 적응에도 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Bikos et al., 2014). 같은 맥락에서, MK대학생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약 40% 이상이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었으며, 여학생들이 더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Davis, et al., 2013). 이들의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가 성인이 되면 다소 해소 된다는 입장이 있지만(Wrobbel & Plueddemann, 1990), 귀국 MK 대학생들은 한 문화권에서만 성장한 토레들이나 여타 다른 TCK 보다 귀국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큰 갈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문화정체성에 대한 이해

청소년기에 타국에서 거주하면서 겪게 되는 이중문화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및 문화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열등감,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불신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Sirin, Ryce, Gupta, & Rogers-Sirin, 2013). 이처럼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문화

정체성 간의 상호 부적인 영향과(Claudat, White, & Warren, 2016), 심리적 안녕감 등을 포함하는 심리·정서적 특성과 정신건강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은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신혜정 외, 2015).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타민족과의 접촉 여부가 다른 문화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없는 태도, 그리고 유연성을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Hainmueller & Hiscox, 2007). 다시 말해 다른 문화들을 접하면서 그 차이를 인지하고 타문화에 대해 편견 없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은 타문화를 경험하고 대처하는 태도 등의 정서적인 능력까지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타문화와 이중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오히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적응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중언어능력을 강점으로 지각하고 있었다(김혜지, 김미경, 2021). 이중문화 정체성(bicultural identity)은 문화적응 전략(Sam & Berry, 2006)과 맞닿아 있으며, 문화적 조화(cultural harmony) 또는 문화적 혼합(cultural blendedness)과 관련된 개념으로(Huynh, Benet-Martínez, & Nguyen, 2018) 볼 수 있다. 이중문화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주요한 과업은 문화정체성 형성이다(Cheng, Lee, & Benet-Martínez, 2006; Phinney, Gabriel, Liebkind, & Vedder, 2001; Yuan, Fang, Liu, Hou, & Lin, 2013), 문화정체성은 동화보다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Nguyen & Benet-Martínez, 2013), 특히 이중문화 성향(bicultural orientation)을 지닌 구성원들은 주관적인 안녕감을 경험한다(Phinney et al., 2001).

이중문화 정체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두 가지 정체성이 양립되어 심리, 사회적 적응력이 높아(Benet-Martínez & Haritatos, 2005), 조화로운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이중문화 정체성이 낮은 개인은 다른 문화 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한다(Tikhonov, Espinosa, Huynh, & Anglin, 2019). 일부 연구에서는 이중문화 정체성을 지닌 청소년은 자아효능감(self-esteem)이 향상되었으며, 우울증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Chen, Benet-Martínez, & Bond, 2008).

문화 정체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문화수용성(cultural acceptance)은 두 가지 이상 문화에 노출된 개인의 성장을 고려하는 개념으로(김우진, 정지아 외, 2017),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해외 체류 기간이 길수록 모국 문화정체성이 낮아 문화재적응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귀국한 사람들은 문화재적응의 여부가 삶의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문화재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

려움과 고충은 다양하지만, 이방인 같은 기분과 낮은 동문 네트워크 이외에도 진로 및 직업 결정을 해야 하는 고충도 만만치 않다고 호소한다(김혜지, 김미경, 2021). 한편, 문화 수용성이 높은 청소년은 나와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해 수용적이지만, 문화수용성이 낮은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박희훈, 이유정, 2019; 이민경, 2016).

#### 4. 성서의 '문화정체성' 형성 사례

성서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양한 문화를 포괄하는 진리를 담고 있다. 또한 성서에는 문화를 초월한 구원의 보편성이 기록되어 있다. 성서 인물들 가운데 타문화 경험 및 적응과 관련된 몇몇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었던 청년 요셉은 뜻하지 않게 애굽의 문화와 접하게 되어 이중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에 애굽의 문화와 언어에만 치우친 일방적인 문화화 과정을 밟아야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지배문화와 문화적 우위 압력이 크게 작용하는 상황에서도 그 문화를 심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야웨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의 가치를 지켜갔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을 총괄하는 역할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적 문화적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며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을 유지한 글로벌 인재로서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다양한 역경과 삶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원문화와 소속감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여러 도전들을 극복하여 문화 간 갈등과 어려움을 승화시킴으로써 범국가적인 재앙의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한 좋은 실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요셉과 대립되는 문화는 보디발의 아내로 표상된다. 요셉은 간음이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된다는 자국의 문화를 따르기 위해 당시 혼음과 성도착이 만연한 애굽의 문화로 대표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다. 보디발 장군에게 고용된 요셉에게 그 아내는 당시 문화적 힘을 가진 계층이며 문화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청년 요셉은 주류 문화인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잘 보존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지켜나간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김미경, 2011)

또한 모압의 미망인 룯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은 이중문화의 유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김미경, 2011). 민망한 혈통의 후손인 룯은 모국의 문화와 단절을 하고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부모의 신실한 신앙과 수용적

인 양육 환경 속에서 자아탄력성을 발달시켜 믿음의 계보가 다윗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디모테도 어머니의 문화와 아버지의 문화가 교차되는 환경에서 성장한 인물이다. 즉 디모네는 아버지의 헬라 문화와 어머니의 히브리 문화가 공존하는 이중문화공동체에서 양육되었고, 외할머니 로이스의(딤후 1:5) 신실한 믿음은 디모테의 신앙에 좋은 토양이 되었다. 디모테는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후에 사도 바울이 가장 신임하는 동역자가 된다.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도 디모테는 바울 곁에 남아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 비록 디모테가 어려서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기도 했으나(딤후전 4:12), 바울은 그를 인정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교회를 돌보게 하고, 중요한 일들을 맡겼다. 이처럼 바울의 신앙유산을 계승한 디모테는 영적 리더로 성장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디모테를 칭찬받는 제자이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딤후전 1:2). 바울 서신 가운데 디모테의 이름은 바울과 나란히 여섯 곳의 서두에서 등장한다(고후 1:1; 빌 1:1; 골 1:1; 살전 1:1; 살후 1:1; 몬 1:1). 이 가운데 네 곳에서는 디모테만 다른 동역자의 이름이 없이 언급된다(고후 1:1; 빌 1:1; 골 1:1; 몬 1:1). 바울이 여섯 편의 편지를 보낼 때, 바울 곁에는 분명 다른 동역자들도 있었을 텐데 디모테의 이름만 언급된 것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디모테만이 바울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변함없는 평생 동역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 5. 귀국 MK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돌봄

귀국한 MK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독교 돌봄 서비스가 사회적 지지 역할을 해야 한다. MK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건강함, 문화수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에 관해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상담은 MK의 여러 문화와 인종이 혼재된 선교지의 분위기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들이 이미 학습한 언어와 문화를 모국에서 잘 통합하여 진로를 결정하여 선교사 자녀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을 갖도록 조력해야 한다. MK는 성장기 동안 문화간 이동을 경험하게 되고 귀국 후에는 직장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모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김혜지, 김미경, 2021). 직장에 대한 비판의식은 자국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일반화되어 모국에 대한 양가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또한 MK는 문화충격을 겪는 가운데 자아에 대한 재정립과정이 동일

문화권에서 자란 목회자 자녀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선교현장에서는 현지인과 다르다는 사실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드디어 모국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호감과 아울러 현지에서 영적 지도자의 자녀로 흔들림 없이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막상 귀국 후에는 오랜 기간의 선교 공백으로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돈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표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또래 관계 형성이 어려워 모든 일을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고독하였다고 한다(김혜지, 김미경, 2021). 필자가 만난 MK도 부모님들이 선교지 사역이 너무 바쁘고 그 사역의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푸시는 것이 곤혹스러웠으며, 무엇보다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과 열악한 교육환경이 감내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둘째, MK의 혼란스러운 정체성 문제의 실마리는 문화적 영향 속에서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귀국한 MK들이 긍정적인 이중문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독교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이중문화 정체성 형성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한국문화에 대한 동화만을 주입하는 일방향적 프로그램보다는 부모의 문화를 재학습할 수 있는 통합지향적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된다.

셋째, 귀국 MK는 한 문화권에서 신앙생활을 한 또래들과는 달리 선교지의 잦은 이동으로 신앙적 변화기를 겪기도 하였으므로 이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지지집단의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대개 선교지는 작은 교회가 위주이므로 영적 지도자 자녀라는 집중된 관심을 받다가 귀국 후에는 급작스럽게 모든 사회적 지지집단을 상실하게 되어 낮은 심리적 안녕감(Smith & Kearney, 2016)을 경험하게 된다. 대개 MK는 선교지의 이동으로 짧은 대인관계에 익숙해 있으므로 친밀한 만남보다는 대인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이러한 심리적 특징을 잘 이해하여 방어적 태도로 해석하기 보다는 선교지에서 발달시킨 심리적 대처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대인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만남보다는 짧은 만남에 익숙해져 있기에 이러한 태도를 심리적 개입에서 직면시키지 않도록 상담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MK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갖도록 하는 섬세한 기독교적 돌봄이 필요하다. MK는 귀국 후에 진로에 대한 탐색이나 결정은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고, MK의 개인적이며 복잡한 심리적 측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귀국 MK에 대한 기독교 집단상담으로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넷째, 한국이 아닌 새로운 문화에서 살아내야 하는 선교사 자녀는 낯선 선교지의 특

성상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선교지의 일상생활의 도전과 어려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적응유연성은 선교사 자녀들이 현지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보호요인이기 때문이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어렵겠지만, 이들이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하다. 선교사 자녀들이 호소하는 우울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의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의 상담서비스, 부모-자녀의 관계를 개선하는 상담 프로그램 및 또래 관계 및 학교생활의 학교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등의 다면적인 심리,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선교사 파송 단체 및 교회와 선교사 부모는 선교지로 파송되기 전, 안전한 환경체제가 마련이 되면 선교사 자녀의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교사 자녀들의 상당수가 선교지에 정착 후 정체성 혼란, 교육 문제, 모국어의 상실, 부모와의 갈등,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선교사와 가족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선교사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특히 한국으로 재입국할 때 한국에서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된다고 한다(윤다운, 권경인, 2015).

다섯째, 귀국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이들과 유사한 경험을 한 기독교상담자들을 양성하는 상담 프로그램도 효과적일 것이다. 국외 거주에서 오는 심리, 사회적 및 영적 어려움을 깊이 공감해줄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기독교상담자들을 갖추는 지원이 효과적이다. 실제 상담에서 기독교상담자는 문화적 민감성을 지니면서 내담자의 문화적 경험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내담자가 겪는 어려움이 다문화 경험을 통한 혼돈과 상실감의 표현이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역동을 인지하여 혼돈을 줄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상담자는 기독교 TCK들에 대한 상담적 개입을 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개인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영적 민감성과 아울러 이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더 기독교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내담자들의 독특하고 복잡한 심리적 갈등과 증상들에 대해 심도 깊은 문화적 탄력성(cultural resilience)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 귀국 학생들이 문화재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독교적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MK는 다양한 선교현장에서 성장하였으므로 이들의 그룹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케어가 필요하다. 아울러 MK는 영어는 물론 현지어 능력을 보유하고, 이중문화의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선교지에 네트워크 보유와 선교지에 대한 심층 이해, 성장기에 어려움을 ‘몸체험’한 이들은 실제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기도 하므로 한국 선교계의 선교 동원 자원이라는 인식이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MK는 현지 선교사역에 대한 간접적 경험이 풍부하므로 이들에 대한 기독교적 돌봄이 선행된다면 무한한 잠재력을 충분히 펼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일곱째, MK는 대체적으로 재입국시 학업 혹은 취업 준비의 양갈래 길에 놓여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진로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진로상담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의 특성에 부합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독교상담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귀국한 MK가 한국사회의 적응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독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 이들이 조기 적응과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독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III. 닫는 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MK는 선교지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매우 독특한 집단으로, 선교지와 현지인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고 있어 이중문화의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갑작스럽게 한국에 재입국했을 때, 이들이 겪게 되는 정체성 혼란과 정서적인 충격의 반복적 경험들을 감안하여 MK를 위한 기독교적 돌봄과 다각적인 방면에서의 지원과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MK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 이들이 학령기에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돕고 돌봐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는 청년기 시절의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경험들에 대한 돌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입국 및 귀국한 MK는 다양한 선교지에서 겪은 감정적 윤곽이 다르기에 서로 다른 사회의 학교를 경험 하였을 것이고, 공식적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의 형식과 교과 과정을 실행하는 방식 등 다양한 차이를 경험했을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타인의 긍정적 평가와 소속감이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바, 귀국 MK가 체류했던

국가의 문화적 특성이 한국 사회의 맥락 속에 통합될 수 있도록 기독교상담은 보다 개방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적인 지배문화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소속감을 키우도록 하는 것, 개인의 하위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 문화적 환경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역할일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타자화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초공감의 자세가 필요하다. Augsburg가 강조한 범문화적 초공감(interpathy)은 다른 문화나 세계관을 지닌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의도적으로 인식하여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문화의 경계선에서 갈등하기 보다는 문화적 민감성을 지니고 타문화에서 머무르면서도 자신의 문화로 되돌아 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Augsburger, 2005).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도 열린 마음으로 편안하게 MK가 경험한 타문화와 상담자의 문화로 오고 가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실체들을 경험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게 되면 기독교상담자는 MK의 다양한 문화적 여정을 독특함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갖추게 되어 문화적 역전이(cultural countertransference)로 인한 혼돈을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Foster, 1998).

또한 MK의 정체성 영역은 신앙적인 정체성 확립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포함되는데, MK의 신앙적인 정체성은 암암리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요구받는다. 목사,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야 하고, 교회를 잘 다녀 예배를 잘 드리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항상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요구받지만, 정작 자신은 보여 지기 위해 교회활동을 해야 하는 가식적인 면이 많아 하나님과 자신의 인격적인 믿음 없이 살아왔다고 슬피했다(윤다운, 권경인, 2015). 이처럼 MK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도 했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웃어른 예의에 대한 적응과 선후배 문화가 익숙지 않았고 한국 최신 문화에 대해 무지하여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 교육 체계에 적응할 수 있을지, 학업 진도에 맞출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윤다운, 권경인, 2015). 이처럼 선교사 자녀는 타지에서 소수자로서의 경험이 내재해 있으므로 이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한국 재입국으로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조사를 통해 상담 요구에 대한 적절한 기독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K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그들의 선교지 체류의 한정된 시간 사이의 긴장이 귀국 후의 삶의 질을 규정짓겠지만, 기독교 상담자들은 우선적으로 이들이 심리적 안녕감과 총체적 적응을 잘 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년 MK의 바람이 상담이라는 더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한 이들이 수많은 도전적인 상황들 속에서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연구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 논문 투고일: 2022년 01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22년 03월 03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03월 09일



## 【참고문헌】

- 권민영 (2013). 선교사 자녀의 영적 안녕감, 긍정적 사고, 부모-자녀 관계가 현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화 (1996). MK 부모를 깨운다. **MK 저널**, 제 2호.
- 김미경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기독교상담: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17, 74-100. <http://dx.doi.org/10.17841/jocag.2011.17..74>
- 김우진, 정지아, 심태은, 이송이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능력과 이중문화 수용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4), 167-194. <http://dx.doi.org/10.14816/sky.2017.28.4.167>
- 김혜정, 이수경 (2016). 기독교국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7(3), 35-58.
- 김혜지, 김미경 (2021). 귀국 성인의 직장생활 적응과정: 근거이론접근. **교육치료연구**, 13(1), 143-167.
- 박은주 (2018). 선교사 자녀가 겪는 정서적 혼란과 부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상담교청 연구**, 9, 29-48.
- 박정은, 김영주, 김소현 (2013). 해외 선교사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 변인 연구. **이중언어학**, 51, 81-110. <http://dx.doi.org/10.17296/korbil.2013..51.81>
- 박희훈, 이유정 (2019).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에서 다문화정체성 인식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5(1), 725-743. <http://dx.doi.org/10.24159/joec.2019.25.1.725>
- 방준범, 전병철 (2018). 한국 MK에 관한 국내연구동향과 고찰. **ACTS 신학저널**, 35, 125-163. <http://dx.doi.org/10.19114/atj.35.4>
- 백애경 (2000). 선교사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신혜정, 노충래, 허성희, 김정화 (201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7(3), 5-29. <http://dx.di.org/10.209970/kasw.2015.67.3.001>
- 안은숙 (2013). 재입국 선교사 자녀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연구-하나님 형상 개념에 기초한 관계성을 중심으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원남숙 (2006). TCK와 일반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유형의 비교 연구.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나, 김순규, 이주재 (2018).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1), 221-228. <http://dx.doi.org/10.35873/ajmahs.2018.8.1.022>
- 윤다운, 권경인 (2015). 한국인 선교사 중고생 자녀의 상담요구 조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2), 103-137.
- 이민경 (2016).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재구성. **교육사회학연구**, 26(1), 101-120. <http://dx.doi.org/10.32465/ksocio.2016.26.1.005>
- 이수경 (2021). '제 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 TCKs)'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안 모색 : '교차문화 아이들(Cross-Culture Kids: CCKs)' 용어 제안.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291-313.
- 이영선, 이동훈 (2009). 귀국 청소년의 국내 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1783-1804. <http://dx.doi.org/10.15703/kjc.10.4.200912.1783>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채송희 (2009). 한국주재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문화 수용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주혜 (2013). 한국 목회자 자녀의 수치심. **신학과 실천**, 36, 389-415.
- Augsburger, D. W. (2005). **문화를 초월하는 목회상담**(임현만 역,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s*). 서울: 그리심. (원전 1986 출판).
- Bell-Villada, G. H., Sichel N., Eidse, F., & Orr, E.(Eds.). (2011). *Writing out of limbo: International childhoods, global nomads, and third culture kids*. Cambridge, UK: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Benet-Martínez, V., & Hartiatos, J. (2005). Bicultural identity integration: Components and psychological antecedents. *Journal of Personality*, 73(4), 1015-1049.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 Bikos, L. H., Kocheleva, J., King, D., Chang, C. G., McKenzie, A., Roenicke, C., Campbell, V., & Eckard, K. (2009). A consensual qualitative investigation into the repatriation experiences of young adult, missionary kid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2(7), 735-754.
- Bikos, L. H., Haney, D., Edwards, R. W., North, M. A., Quint, M., McLellan, J., & Ecker, D. L. (2014). Missionary kid career development: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investigation through a social cognitive len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2), 156-174.
- Chen, S. X., Benet-Martínez, V., & Bond, M. H. (2008). Bicultural identity, bilingualism,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societies: Immigration-based and globalization-based accultu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76(4), 803-838.
- Claudat, K., White, E. K., & Warren, C. S. (2016).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and eating pathology in Latina and Asian American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5(1), 88-100.
- Cockburn, L. (2002). Children and young people living in changing worlds: The process of assessing and understanding the "Third Culture Kid". *School Psychology*, 23(4), 475-485.
- Davis, P., Suarez, E., Crawford, N., & Rehtuss, M. (2013). Reentry program impact on missionary kid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 three-year study. *Journal of Psychology & Theology*, 41(2), 128-140.
- Foster, R. P. (1998). The clinician's cultural countertransference: The psycho dynamics of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26(3), 253-270.
- Gaw, K. F. (2000). Reverse culture shock in student returning from overse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83-104.
- Geeraert, N., & Demoulin, S. (2013). Acculturative stress or resilience? A longitudinal multi level analysis of sojourners' stress and

- self-estee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8), 1241-1262.
- Gilbert, K. R. (2008). Loss and grief between and among cultures: The experience of third culture kids. *Illness, Crisis, and Loss*, 16(2), 93-110.
- Hainmueller, J., & Hiscox, M. J. (2007). Educated preference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2), 399-499.
- Hervey, A. (2009). Cultural transitions during childhood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8(1), 3-12.
- Huynh, Q-L., Benet-Martínez, V., & Nguyen, A. D. (2018). Measuring variations in bicultural identity across U.S. ethnic and generational group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icultural identity integration scale-version 2(BIIS-2). *Psychological Assessment*, 30(12), 1591-1596.
- Lyttle, A. D., Barker, D. G., & Cornwell, T. L. (2011). Adept through adaptation: third culture individuals' interpersonal sensi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5), 686-694.
- McGregor, B. D., Renu, G., & Deepa, S. T. (2013). The perceptions of Third Culture Kids of being different to children of their home cou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2), 122-126.
- Nguyen, A-M., & Benet-Martínez, V. (2013). Biculturalism and adjust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1), 122-159.
- Phinney, J. S., Gabriel, H., Liebkind, K., & Vedder, P. (2001). Ethnic identity, immigration, and well-be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93-510.
- Kanno, Y. (2000). Kikokushijo as bicultur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261-282.
- Pollock, D. C., & Reken, R. V. (2008). **제3문화 아이들: TCK(박주영 역, *The third culture kid experience: Growing up among worlds*)**. 서울: 비즈앤비즈. (원전 2001 출판).

- Sirin, S. R., Ryce, P., Gupta, T., & Rogers-Sirin, L. (2013). The role of acculturative stress on mental health symptoms for Immigrant adolescent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9*(3), 736-748.
- Smith, V. J., & Kearney, K. S. (2016).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the repatriation experiences of US third culture kids in colleg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7*(3), 958-972.
- Tannenbaum, M., & Tseng, J. (2015). Which one is Ithaca? Multilingualism and sense of identity among Third Culture Kid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12*(3), 276-297.
- Tikhonov, A. A., Espinosa, A., Huynh, Q. L., & Anglin, D. M. (2019). Bicultural identity harmony and American identity are associated with positive mental health in U.S. racial and ethnic minority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5*(4), 494-504.
- Wrobbel, K. A., & Plueddemann, J. E. (1990).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adult missionary kid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8*, 363-374
- Yuan, X., Fang, X., Liu, Y., Hou, S., & Lin, X. (2013). Development of urban adaptation and social identity of migrant children in China: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7*(3), 354-365.
- kwma. (2021년 2월 26일). 2020년도 선교사 파송집계(168개국 22,259명). *한국세계선교협의회*. [https://kwma.org/index.php?mid=cm\\_stats&category=35436&document\\_srl=47233](https://kwma.org/index.php?mid=cm_stats&category=35436&document_srl=47233)

[Abstract]

## Christian Counseling Care for Young Adults Returning from Third Culture: Focusing on MK

Kim, Mi Kyung\*

Many missionary children are born or raised in a variety of countries. 'Third Culture Kids' are defined as the children who grew up in a culture other than their parents' culture. Missionary children are considered a small group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Third Culture Kids' as they experience multilingualism, multiculturalism, and multi-society. As missionaries and their children have to adapt selectively in the fields of politics, culture, economy, and daily life of the mission country, they have to use the dual strategy of maintaining their faith community while negotiating with the ruling people. In addition, when they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after spending a certain period of growth in various mission fields abroad, they experience a great deal of reverse culture shock due to cultural adaptation and cross-cultural movement. However, mos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missionary children of school age, and studies on college students and adults started appearing in the mid-2000s. When examining the life of missionary children as a whol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how to help and care for the difficulties they face during school age. However, it is even more crucial to provide Christian care for young adults' multifaceted and comprehensive experiences when essential things in life are decid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several methods for Christian counseling care for the readjustment of missionaries' children in their young adult period who have returned or re-entered their country.

**Key words:** Third Culture Kids, Missionary Kids, reverse culture shock, culture adaptation, Christian care.

---

\* Seoul Hanyoung University,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Counsel  
Psychology / Associate Professor